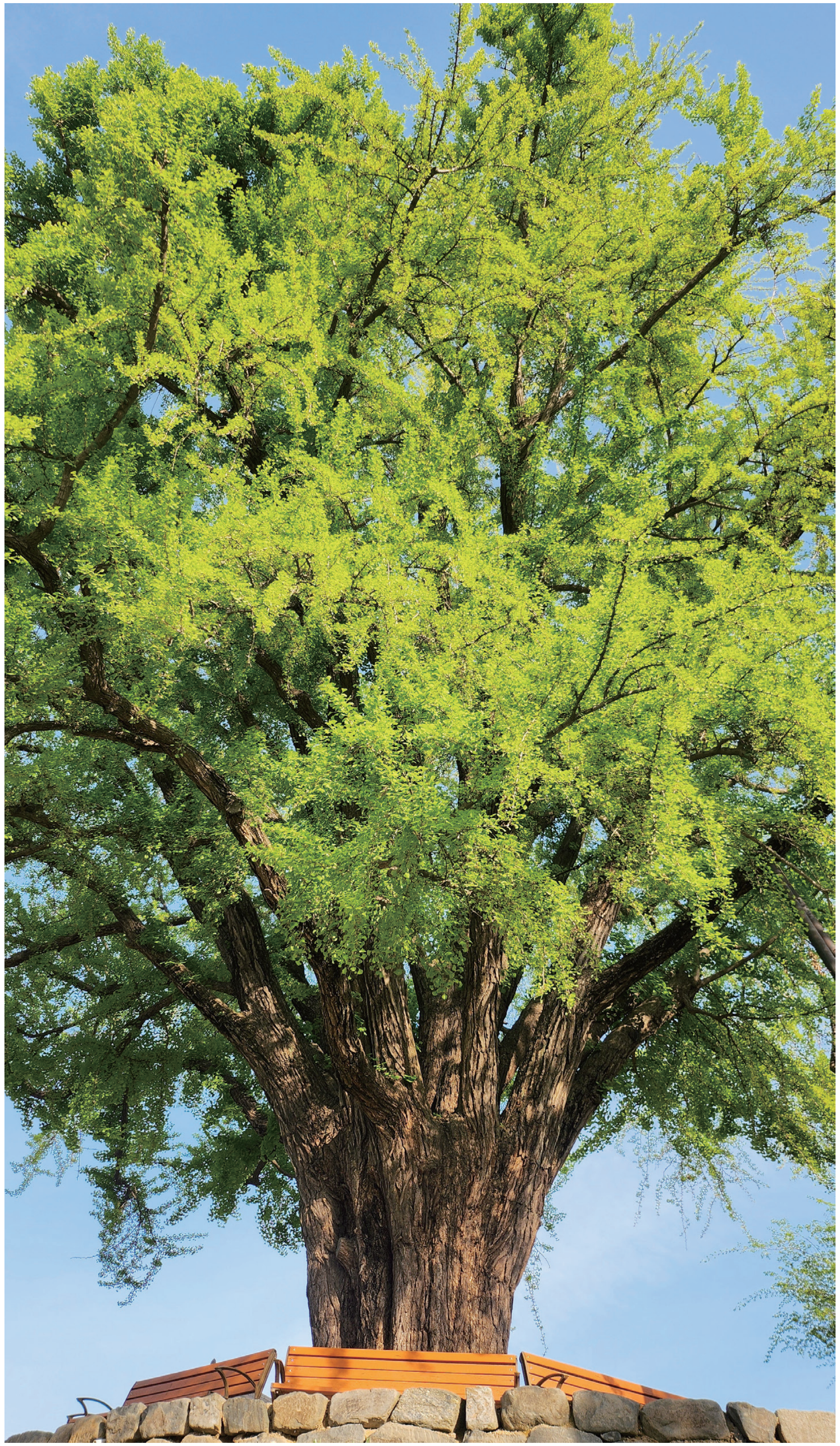

공자의 사당 재건과 함께 살아난 은행나무

지정번호	오산-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311년
수고	20m
흉고둘레	5.2m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3

37˚09′31.00″N
127˚03′46.00″E

공자의 사당에 있는 커다란 보호수(오산-3) 은행나무는 궐리사의 전통과 역사의 상징이다. 궐리사는 원래 조선 중종 때 대사헌, 안찰사 등을 지낸 공자의 64대손 공서린孔瑞麟(1483~1541)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낙향한 후 여생을 보내면서 후학을 양성하던 강당터였다. 공서린이 죽어 250년이 지난 후에 강당터는 정조(1752~1800)의 지시로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제하는 공자의 사당이 되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311년으로 추정되며, 새싹이 돋아나기 이전까지 합하면 500여 년이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둘레는 520cm 정도이다. 궐리사의 화두話頭로 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원줄기 3m 정도의 높이에서 십 수개의 가지가 갈라졌고, 마치 우산을 펼쳐 놓은 듯 너비 15m 정도의 나뭇갓이 사방으로 펼쳐진 모양이다. 은행나무에 담긴 전설은 공서린과 관련이 있으며, 주인을 따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무로 전승하고 있다. 공서린은 이곳에 서재를 세우고 잘 자란 은행나무를 골라 강당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 북을 걸고 두드려 제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독려하며 여생을 보냈다. 이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르침을 베푼 행단杏壇과 같이 그에게도 그 은행나무는 후학 양성에 대한 상징과도 같았는데, 아쉽게도 공서린이 세상을 떠나자 제 소임의 명문을 잃은 그 은행나무도 함께 죽었다. 그로부터 250년쯤 후에 죽었던 은행나무가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정조 즉위 16년 즈음의 일이다. 정조는 한양에서 부모의 묘를 모신 화성(현재의 수원)을 찾아 가려면 궐리사를 거쳐야만 하였다. 정조가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에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곳을 보았는데,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보니 죽은 은행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이 즈음에 정조는 이곳이 공자의 후손인 공씨 집성촌과 공서린이 후학을 양성하던 강당 터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공자의 사당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사당이 완공된 후에는 중국 공자의 고향인 궐리闕里의 이름을 따 궐리사闕里祀라는 이름을 손수 사액賜額하였다. 마을 이름도 공자의 고향인 중국 곡부현 궐리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궐리 또는 궐동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고사하였던 은행나무가 신기하게도 궐리사의 재건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던 것이다.